

유다서 미: 마지막 때에 왜 우리는 진리 전쟁을 해야 하는가?

유1-4

우리는 23시간에 걸쳐 예배에 대해 공부하였다.

왜 우리가 그토록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창조 및 존재 목적

성경에는 진리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온다. 180구절, 특히 사도 요한의 서신에 많이 나온다.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14:6), 성령님은 진리의 영(요14:7; 15:26)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17:17),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는다.

이렇게 죽으면 영원히 진리와 분리된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요18:37)

예배 시리즈 후에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등의 목회 서신을 강해하려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앞으로 2주는

오전과 오후 그리고 금요일에 먼저 유다서를 강해하려고 한다.

바르게 예배하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진리를 지키는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유다서이다. 참고 도서, 맥아더의 <진리 전쟁>, 생명의 말씀사

유다서 강해 말씀, 위어스비, 맥아더 등 참조해서 강해하려고 한다.

유다서 개요

연대 주후 67년경, 저자 유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1절)

주제: 배도의 때에 진리 전쟁을 해야만 한다(3), 지금이 그런 때

목적: 성도들이 흠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려는 것(24-25)

내용: 유다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구원 혹은 구원의 결과에 관하여 기록하려 했으나 성령님께서 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진리를 왜곡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기 원하셨다. 그래서 유다는 주를 부인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하고 구약 시대 배도의 예를 보여 준다. 그는 이 짧은 서신에서 삼위일체, 구약 성경의 확실성, 천사들의 존재, 사탄의 존재와 그의 권능, 심판과 보복,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신성 등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제시한다. 유다서는 1장, 25절로 핵심 단어: 보존되다, 핵심 문구: '힘써 싸우라'(3),

저자 유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대다수 성경 주석가들이 이 서신의 저자인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고 생각한다. 성경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밑으로 적어도 네 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예수님의 네 동생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 그분에게 어린 누이들이 있었음도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 6장 3절도 비슷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집은 대가족이었다(10여 명).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는 지가 묘사되어 있다.

54절, 그들은 평범한 마을에 사는 천한 목수의 가문에서 예수님 같은 위대한 선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놀라면서 불신의 반응을 보인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언급한다.

마13:55,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유다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다. 창세기: 야곱의 열두 아들 중 넷째의 이름이 유다이다.

가롯 유다도 있고 성경에는 이 외에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다.

유다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1절의 야고보는 누구인가? 성경에는 야고보도 많이 나오며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 중 하나의 이름도 야고보이다. 삼총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세베대의 아들들) 행12장에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유다서 1절의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초대 교회 초기에 일찍 순교했기 때문이다(AD 43-44년경). 즉 유다가 이 서신을 썼을 당시는 그가 죽은 지 오래였다(20년 이상 시간이 지남).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갈1:19에서 ‘주의 형제’라는 호칭으로 등장하며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한다. 그는 예수님의 형제들 명단에 늘 처음 나오므로 예수님의 바로 밑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반면에 유다는 명단에서 뒤에 나오므로 정황상 야고보보다 4-5살 어린 동생이었다. 즉 예수님보다 5-6살 어린 동생이다.

이 서신에서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 혹은 주의 형제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것을 이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주님의 형제들의 믿음의 여정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그분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눅4:28-29). 막3:21,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한 뒤에 그분의 친지들은 그분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기도 하였다.

그래서 어린 동생들은 자기들의 큰형인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에 큰 혼란을 느꼈을 것이다.

“왜 사람들이 우리 형에게 저런 일을 할까? 형이 큰 문제를 일으켰나, 이단일까?”

여하튼 처음에 그들은 그분에 대해 회의에 사로잡혔음에 틀림이 없다.

공생애 끝 부분, 요한복음 7장 5절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 물론 아마도 십자가 처형과 부활 이후에 야고보와 유다가 다 믿었지만 처음에는 이들도 다 믿지 않는 불신자였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그 믿음을 확고히 지켰다.

따라서 유다라는 사람과 그리스도와와의 가족관계를 잘 이해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히 안 뒤에 그분의 진리를 수호하는 이에 열정을 다 쏟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유다는 적어도 25년 정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고 그분의 부활 목격한 뒤에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이다.

집안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지만 정확히 알게 되면 가장 큰 확신을 갖게 된다.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저자일 가능성이 크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 죽었으므로,

지상에 있던 예수님 자신의 형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신약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실로 매우 놀라운 일이다.

1절에서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겸손히 기록한 것을 보며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육체적 혈통 면에서 보면 그분은 그와 가장 가까운 육신의 형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뒤에는 그 모든 인간적인 것은 다 사라졌고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 즉 주인으로 여겼다. 바울의 고백(고후5:16):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지금 이후로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역시 믿기 전에는 위대한 성인, 좋은 사람, 영화 킹 오브 킹즈 등에서 묘사되는 분 그러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목사만 아니라 전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매장, 부활 이후에 주님의 형제들 중 적어도 둘은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사도행전 1장 13-14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은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여러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로부터 15년이 지난 뒤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치리자가 되어 회의를 주재했다. 따라서 그의 동생인 유다 역시 확고한 믿음으로 여러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고 바로 그가 오늘의 주제 서신인 유다서를 기록하였다.

유다서의 대상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다음에 나오는 야보고서는 ‘흠어진 열두 지파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전후서 역시 문맥과 내용으로 보아 1차적으로 널리 흠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주 대상이다. 위의 3책은 주 대상이 당시 믿음을 가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반면에 요한1,2,3서는 제목처럼 일반 서신이다. 모든 사람이 주 대상이다.

유다서 역시 일반 서신으로 주 대상에 제한이 없다. 주 대상이 누구인지 저자가 밝히지 않으므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25절의 짧은 글 안에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이 부각되어 있다. 즉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이 안에 가득하다. 이것으로 볼 때에 이 서신의 주요 대상은 히브리서, 야보고서의 주요 대상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1절: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

유다는 편지 서두에 이 히브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한다.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말은 성도라는 말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즉 유다서의 대상인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따로 분리한 자들이다.

출애굽기,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지방에는 하나님의 재앙들이 닥치지 않는다,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 즉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구분된 자들이다.

또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보존되어 있는 자들이다. preserve라는 말은 썩는 것에서 분리하여 지키는 것을 말한다. 방부제 preservative,

구약성경 시12:6-7, preserve는 하나님의 말씀 보존 약속 등에 사용된다.

6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7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은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삶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들은 악한 세상, 부패한 세상에서 분리되어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썩지 않는 존재들이 되었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방부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2절: 긍휼과 화평과 사랑

2절: 유다는 바로 이들에게 긍휼과 화평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은혜와 화평...

유다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하였다.

긍휼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이 성도들의 상황이 심히 어려움을 보여 준다.

긍휼이라는 말, 성경에 적어도 338구절에 나온다.

가장 먼저, 창19:16, 소돔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는 장면, 롯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 도시 밖에 두었다고 기록함.

즉 긍휼은 너무나 급박하고 황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광야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성소 금등잔대, 보여 주는 빵을 두는 상, 분향 제단, 휘장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긍휼의 자리가 있으며 그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다.

긍휼의 자리는 궤를 덮는 판이다.

우리 하나님은 두 그룹 사이에 거하시면서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 자리가 긍휼의 자리이다.

레16:14, 그는 수소의 피를 취해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일곱 번 뿌릴지니라.

의미: 피가 덮는 대상은 긍휼의 자리 자체와 그 앞이다. 이 피는 언약궤 속에 있는 율법 돌판(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덮어준다.

즉,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의 죄가 긍휼의 자리 위에 뿌려진 피로 덮이는 것이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히9:22). 율법(언약궤 속)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그 위를 덮은 피는 그 정죄를 덮어 주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자리를 “긍휼의 자리”라 부르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해 헌물(propitiation, 롬 3:25)**이 되셔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덮어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긍휼을 얻게 하셨다.

성도의 특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히4:16).

적용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리를 인정하는 않는 시대이다. 진리란 절대적인 것인데 현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즉 절대적인 것은 다 부인하고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서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정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자, 진리의 성령님이 부정되고 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성경 신자로 살려고 한다. 누구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진리 전쟁에 나서야 한다.

내가 살고 자식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진리의 전쟁터에서 진리를 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구사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유다의 서신을 통해 이런 것을 깨닫고 진리 전쟁을 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유다서 2: 진리 전쟁의 상대는 사탄 마귀와 거짓 교사들이다

유3-7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진리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예배 시리즈 이후, 이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 진리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유다서를 몇 시간 강해한다.

지난 시간 유다서 서론 부문, 왜 진리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가?

오늘 < > 진리 전쟁의 상대가 누구이고 또 과거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 사도들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려 한다.

3-4절: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 혹은 목적(3-4절)

유다는 다급한 심정으로 서신을 썼다. 3-4절에 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다급한 이유가 나온다.

유1:3-4

그는 원래 모든 신자들이 누려야 할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 쓰려고 했다.

공통의 구원: 죄의 죄책과 권능에서 구출되어 먼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장차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구출되어 영원한 행복과 영광에 이르게 되는 구원을 말한다. 이 구원이 “공통의 구원 (common)”이라 불린 이유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속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나라와 모든 신분의 사람들에게도 해당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계획되었고, 모든 신자들이 이것을 누리고 있다. 같은 이유로 바울은 복음의 믿음을 “공통의 믿음(common faith)”이라 불렀다(디도서 1장 4절). 이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에 나타난 내용대로 편지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자신의 목표를 단념했다.

왜? 현존하는 다급한 문제가 있다. 스래서 성령님의 주권적 통제와 감동을 따라 원래 계획했던 내용과는 다른 것을 쓸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유다의 편지는 그들이 믿음 즉 진리를 위해 싸우라고 촉구하는 글로 바뀌게 된 것이다.

원래 쓰고자 했던 서신 내용을 바꾸다

유다가 원래 쓰고자 했던 방향과 내용을 바꾸게 한 것은 무엇일까? 이에 관한 언급은 없다. 아마도 그가 편지를 쓰기 전에 어디선가 정보를 받았을 것이다. 아니면 주께서 신속히 편지 내용을 바꾸도록 그에게 초자연적으로 보여 주셨을 수도 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성령님은 유다에게 원래 계획을 바꾸어 글을 쓰게 하셨다.

핵심 권면은 무엇인가?

한 번 전달된 믿음(단번 속죄 복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워야 한다. 한 번 전달된 믿음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할 때 일어서서 대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런 구원은 심각한 타협에 빠질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위로와 격려를 전하려는 마음에서 편지를 쓰려 하다가 무장해서 전투해야 한다는 것을 강렬하게 촉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다서 전체는 모든 세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진리의 전쟁의 함성으로 넘쳐난다. 유다는 진리 전쟁에 참전하여 주님 편에 서라고 촉구한다.

진리 전쟁은 시대를 초월한다.

많은 이들이 초대 교회 시대는 더럽혀지지 않은 순박하고 순수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놀랍게도 진리를 위한 전쟁은 사도들의 시대에도 필요했다. 진리의 방해꾼들이 처음부터 거짓을 기독교 교리와 섞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입했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의 서신서: 영지주의 이단들(요일4:1-2)

사도 바울의 걱정(행20:28-30)

교회 밖에 있는 박해자들의 핍박,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신앙고백을 하는 신자들로부터 진리에 대한 공격이 왔다. 나쁜 교리를 교회 내부에 심을 자들을 어떻게든 두려는 사탄의 전략은

신약시대 초기부터 유효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를 흉내내어 그의 일을 막으려는 자들이 있었다(고후 11:13-15).

유다서는 이들을 찾아내서 힘써 싸우며 진리 전쟁을 벌이라고 권면하다(유1:3).

유다서의 배경

여기서 먼저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를 비교해 보자.

유다서의 내용은 베드로후서 2장과 3:1-4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앞뒤 관계를 보았을 때 베드로후서가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고 유다서는 사도 베드로의 서신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사실 17절에서 유다는 자신의 편지가 사도들의 말들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특별히 18절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인용하다.

한편 베드로후서 2장 1-2절과 3장 3절은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예상하고 있다.

4절에서 유다는 이런 자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사람들”(유1:4, 11-12, 17-18 참조)이라고 말하며 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AD 60년경에 이미 거짓 교사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은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 가만히 기어 들어와 숨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동료 신자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해로운 거짓 가르침은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다.

그런데 유다는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신자들에게 촉구했다.

교회의 생명이 진리 전쟁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고후11:4,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거짓 교사들을 보내는 장본인은 사탄이다.

교회에 침투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리들은 항상 교회를 괴롭혀 왔다. 사탄은 더 많은 배교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 거짓 교사들을 보냈다. 복음을 접한 사람들을 복음에서 떠나 파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다. 진리를 듣고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와 주위에 항상 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에 굴복하고 지키고 헌신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교묘히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 전쟁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유다가 편지를 쓰던 당시 배도의 문제는 교회에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 배교는 성경에서 아주 친숙한 주제이다. 유다서는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 배교라는 주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쓴 유일한 책이다. 그러나 신약의 서신들 가운데 유다서만이 배교와 거짓 교리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교회사의 초기부터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서신서들 - 특히 히브리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요한이삼서들 - 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여러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일러주기 위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그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

배도 혹은 배교는 물론 예상된 것이었다. 예수님 자신도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진리에서 벗어나는가를 친숙한 비유로 말씀하신 바가 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지 유형의 밭에 뿌려진 씨로 그리고 있다. 이 밭은 여러 단계의 이해력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 네 가지 유형의 밭 가운데 무려 세 개가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위험한 부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냈지만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으며"(마13:5-6).

20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바로 그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21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그가 걸려 넘어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고 열정적이지만 궁극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머뭇거리고 진리 전쟁에 나서지 않는다.

먼저 마귀는 예수님이 씨를 뿌린 자리에 꼭 자신의 사람들을 뿌린다.

마13:24-30, 알곡과 가라지, 처음에는 둘 다 생긴 것이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배교 혹은 배도라고 하는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진리에 붙었다가, 즉 완전히 성경적으로 구원받았다가 제 자리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고

진리에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의 대에 결단하지 못하고 제 자리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다.

이 둘을 구분하기는 어렵기에 그냥 우리는 이런 현상을 배교 혹은 배도라고 한다(falling away). 이러한 배도 혹은 배교는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한다.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존재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내용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배도 혹은 배교의 실례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 시몬의 사례, 행8:5-25

9절: 그는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함으로 평판을 얻었고, 스스로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자랑했다. 사실 시몬은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던 사람이다.

누가에 따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의 기술이 하나님의 큰 권능"(행8:10)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복음이 사마리아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변했다. 12-13절은 이렇게 소개한다.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와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그때에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심도깊이 복음을 전파하여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놀랍게도 마술사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렀다.

빌립을 통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고 그 결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홀리던 시몬도 엄청나게 놀랐다.

그는 빌립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의 메시지가 진리인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래서 적어도 겉으로 볼 때 시몬은 "믿었고 침례도 받았다."

14절: 드디어 문제가 발생한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내려온다. 그 뒤 18-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님을 받게 하는 것을 시몬이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8:19)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베드로 등에 의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타언어의 기적 같은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을 것이다.

그같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자 시몬은 돈을 주며 자기도 마음 내키는 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요청했다.

시몬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믿었고, 침례 받고 빌립과 동행하고 모든 기적을 봤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20-21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네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네 마음이 옳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네가 차지할 몫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시몬은 가짜였다. 가라지였다. 가짜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다.

베드로의 시몬 분석 23절:

"내가 보니 네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고 불법에 매여 있도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속사람의 변화가 없었다.

이 일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교회 역사는 이 시몬을 시몬 마구스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에서 나온 시모니(Simony)는 성직을 팔아먹는 자라는 뜻이다.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책을 돈을 부고 파는 자

4절을 보라.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색욕거리: 정욕대로 살게 하는 것(벧전2:1; 2:18-19)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증언

대언자 예레미야 당시 가장 큰 문제, 거짓 대언자들

렘6:14, 8:11,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 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이르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구약 시대 유다와 이스라엘 멸망의 일등 공신 거짓 대언자들

예수님 당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선포

수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따름

요한의 증언 요6:66-69절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오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살후 2장,

마지막 때의 특징, 거짓 대언자들 출현, 수많은 표적들, 놀라운 일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미끄러진다(살2:8-12).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교회의 목사, 장로 선교사 등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결단의 시간이 오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정죄

4절, 이 정죄를 받게 되어 있다. 그 정죄의 내용이 5절부터 나온다.

노아 당시, 소돔과 고모라, 가인, 발람 등

진리 전쟁은 필연적이다.

결국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이다.

교리들이 올바라야 한다. 하나님, 사람 사탄 구원 성화 등

그러려면 성경이 올바라야 한다.

2024년 대한성서공회 새 한글 성경, 『새한글성경』은 초교파 연합기관인 대한성서공회가 다음세대를 위해 발간한 공인역 성경으로 12년 동안 39명의 성서학자와 국어학자가 참여해 여러 차례의 검증을 거쳐 완성됐다.

성경 원문의 구조와 어원, 어순을 살려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했으며, 쉽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해 가독성을 높였다는 특징점이 있다. 또 원문의 문장 구조와 분위기를 살려 번역해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디지털 매체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해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창1:3,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기를!” 그러자 빛이 생겼다.

6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둥근지붕(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나누어지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9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데가 드러나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빛이 있으라

물들의 한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늘 아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결론

마지막 때에는 진자와 가짜를 구분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

올바른 성경이 필요하다.

배도하면 낚, 롯, 가인, 발람과 같은 정죄를 받는다.

진리를 알고 진리 전쟁에 같이 뛰어들자.

유다서 3: 진리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진리들을 지켜야 하나?

유3-4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진리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예배 시리즈 이후, 이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 진리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유다서를 몇 시간 강해하려 한다. 맥아더 <진리 전쟁>

지난 두 시간 유다서 서론 부문, 왜 진리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는 원래 구원에 대해 쓰려고 했지만 갑작스런 필요가 있어서 진리 전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할 필요가 생겼다(3).

진리 전쟁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와 거짓 교사들이 있다(4).

이들의 침투 목적: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자들, 갈2:4,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
4절에 있듯이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 이 정죄는 5절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오늘 < >, ‘힘써 싸우라’는 말의 의미,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

대상은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4절)

진리 전쟁의 상대방은 거짓 교사들이다. 유다는 4절에서 그들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썼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부인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한편 그리스어나 영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서로 다른 두 인물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일하신 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을 강하게 확인한 것이다.

이 배교자들 즉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사람이고 위대한 교사라는 점에는 동의하겠지만,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성경 교사를 시험하는 첫 질문은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분은 육신 안에 오신 하나님인가?” 이 핵심 교리를 부인하는 자는 다른 문제에서 아무리 옳아 보여도 거짓 교사다. 그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면, 그가 무엇을 주장하든 언제나 치명적인 결핍이 있다.

이것은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이다(요일4:1-3).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했다(벧후 2:1).

그들은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다(4절 a).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런 죄를 짓도록 미리 프로그램으로 정해 놓으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인간은 완전히 로봇이 돼서 충실히 자기 역할을 하고 이미 정죄된 자는 지옥으로, 구원으로 예정된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극단적 숙명론이 된다.

이 구절의 뜻: 그들은 스스로 진리를 버리고 고의로 돌아섰기 때문에 배교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불신과 배교 행위의 결과로 이들이 심판과 정죄를 받도록 미리 정하셨다.

벧전1:1-2

항상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가장 먼저이다. 그들이 행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운명을 정하신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했다! 그것만으로도 정죄받기에 충분하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실행을 허용한다고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혔다. 4절, 하나님의 은혜를 섹욕거리로 만들었다. 해방의 자유,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를 조롱했다(18절, 벧후3:4).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자체와 그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내리실 심판의 약속을 조롱했다. 노아의 대홍수, 최후 심판의 예표, 불에 의한 심판(벧후3:12)

이런 자들의 문제: 이들은 이 모든 일을 심히 종교적인 탈을 쓰고 행했으며, 이것이 그들의 죄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그들은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 그들의 돈을 취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누렸다. 예수님은 그들을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에 비유하셨다(마 7:15).

구약의 대언자들은 자기 시대의 거짓 대언자들을 꾸짖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도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 교회 성도들은 이 교활한 원수들, 즉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3절: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한다.'

힘써 싸우라는 말의 의미

유다는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유1:3)하고 말한다. 영어로는 'earnestly contend'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고통을 참아가며 필사적으로 애쓰면서 성실하게 열심을 내서 싸우다'를 뜻한다. 이것은 운동 경기 용어로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신경과 근육을 한껏 끌어올리는 헌신된 모습을 표현한다. 이렇게 하려면 많은 훈련, 알이 백이고 고통스럽다. 흔들의자나 폭신한 침대에 앉아 주님의 전쟁을 싸울 수는 없다! 즉 이 단어는 치열하면서도 오래 가는 싸움을 묘사한 것으로, 수동적이고 평화롭고 편안한 의미는 조금도 없다.

크리스천 군사는 우승을 바라보는 운동선수처럼 최선을 다해 전력을 다해 집중해서 싸워야 한다. 또한 진리 전쟁에는 팀워크가 있어야 한다. 믿는 이들이 함께 협력해 원수를 공격하고 패배시켜야 한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마음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이러한 것들을 저술했다. 어떤 사적인 분노나 열정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것이 아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님께서 기록자들을 움직이셔서 기록된 것이다 (벧후 1:21).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21세기 현시대의 진리 전쟁에서 우리 역시 우리의 몫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다. 성령님은 유다의 서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조심하며 거룩히 구별됨과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촉구하신다. 우리 성경 신자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다.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주목하라. 그것은 제제하거나 사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자기와 관련된 어떤 것이 아니다. 이 전쟁에는 아주 제한된 목적이 존재한다. 우리가 애를 쓰며 싸워서 지켜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이다.

17절에서 유다는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이것은 사도들의 교리들(행 2:42)을 말한다. 즉 이것은 성령임을 통해 사도들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전달하신 믿음이라는 객관적인 진리를 가리킨다.

AD 67년경, 여기에는 사도행전, 바울의 모든 서신, 베드로의 서신, 야고보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영어로는 once.

1. once는 말 그대로 딱 한 번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면 진짜로 딱 한 번인가? 사도 바울, 베드로 등 열두 제자, 몇 십 년에 걸쳐 여러 차례 믿음의 진리를 선포했으므로 숫자적으로 딱 한 번은 말이 안 된다.
2. once는 '전에'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전'으로 해석하면 유다 서신의 긴급성이 떨어진다.
3. 다수의 주석가들, once는 once for all이라는 뜻이다. '영원무궁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4. 즉 공통적으로 모든 사도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였다. 히브리서의 단 번 속죄와 비슷한 개념이다.

바울 등 사도들이 전달한 복음 혹은 교리 외에 다른 복음 혹은 교리 체제는 없다.

갈1:8-9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주신 교리의 총체를 가리킨다. 즉 기독교 교리의 총체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교리라는 말을 싫어한다. doctrine

그러나 성경은 이 단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딤후3:16-17

교리(doctrine): 단수 51회(구6, 신45), 복수 5회(신약에만), 총 56회(신약 50회)

1. 교리의 정의: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것
2. 교리는 반드시 빛과 어둠을, 참과 거짓을, 생명과 사망을 나눈다. 교리가 없이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교리의 중요성

1. 교리는 독극물을 막아 준다(딤후4:1, 13-16; 딤후4:1-4).
2. 교리는 성도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준다(엡4:14).
3. 교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다.
4. 교리는 성도를 세워 준다(딤후2:15)
5. 교리는 성도를 무장시켜 준다(딤후3:13-17; 엡6:10-17).
6. 잘못된 교리는 이단을 양산한다.

‘교리’라는 단어는 목회서신들에서만도 최소 열일곱 번(단수 16회, 복수 1회) 나온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 성도들이 건전한 교리(곧 ‘건강한 교리’, 지역 교회의 영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교리)를 배우도록 힘쓰라고 권면했다.

건전한 교리(sound doctrine): 4회(딤후1:10; 딤후4:3; 딤후1:9; 2:1)

성도들을 위한 기본 교리

1. 성경
2. 삼위일체 하나님, 3. 아버지 하나님, 4. 그리스도, 5. 성령님
6. 사탄과 천사들, 7. 사람, 8. 죄, 9. 구원, 10. 교회, 11. 예언(종말론)

성도들에게 전달된 믿음과 교리

목사나 교사나 설교자가 믿음의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교단 교파 출현).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고 애를 써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진리 체제가 있다. 이 진리 체제 즉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 체제가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다’(유다 3).

이 말은 ‘성도들에게 위탁되었다. 맡겨졌다’라는 뜻이다.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청지기직이 있고 각각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청지기직이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 진리 체제를 바울에게 맡기셨다.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고(딤후 1:11). 바울은 디모데 같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딤후 6:20).

그는 디모데에게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들을 맡기라고 권했다.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만일 지난 2000년 동안 시대를 거치면서 신실한 성도들이 이 귀한 교리들, 말씀들을 맡아서 지키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교회는 언제나 단 한 세대만 실패해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만약 우리 세대가 진리를 지키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맡기는 데 실패한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어 간 성도들과 순교자들 -스테반 바울 베드로 등 - 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군대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죽도록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붙는다.

찰스 스필전은 이렇게 말했다. “거짓 교리는 반드시 식별해서 경고 표지를 붙이고, 피해야 한다. 그것은 치명적인 독이다.” “거짓 교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차려져 내 앞에 놓인다 해도 나는 거짓 교리를 전달 수 없다. 그것이 최고급이라 해서 독이 든 고기를 먹겠는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교리에 달려 있다(특히 구원에 관한 교리).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며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목사가 가장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성경 해석의 황금률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 작자 미상

우리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며,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애를 쓰며 담대히 서야 한다. 우리의 입장이 어떤 이들을 불쾌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뒤흔들지라도 그렇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원수들과 싸운다. 이 싸움에 걸려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딤후 6:12).

진리 전쟁은, 무서운 기만의 함정에 빠져 있던 사람들의 영혼을 구출하기 위한 소망을 품고 진리 자체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어둠의 세력에 담대히 맞설 진리를 풀어놓는 진지한 싸움이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공격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한 가르침을 준다. 특히 유다서는 그것을 간결하게 언급한다. 신앙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치명적인 죄를 진리로 가장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평판,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온화한 인격을 그의 가르침이 위험한지 않은지 판단하는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 상식이나 직관, 혹은 첫 인상 같은 것들도 올바른 잣대가 될 수 없다. 성경, 오직 성경만이 이 분야에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하게 안전한 지침임을 명심하라.

유다서 4: 노아 시대의 진리 전쟁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다

유3-7

우리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진리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 진리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유다서를 몇 시간 강해하려 한다. 맥아더 <진리 전쟁>

지난 세 시간 유다서 서론 부분, 왜 진리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가? 원래 구원에 대해 쓰려고 했지만

갑작스런 필요가 있어서 진리 전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할 필요가 생겼다(3).

진리 전쟁의 핵심: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것

유다가 말한 이 믿음은 기독교의 총체적 진리 체계, 영원히 변치 않는 것, Total truth

진리 전쟁의 배후에는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 마귀와 거짓 교사들이 있다(4).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자들, 갈2:4,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

4절에 있듯이 이들은 반드시 정죄를 받는다. 이 정죄는 5절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오늘 < >,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심판을 행하신다.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 비교

유다는 자신의 편지의 주 대상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주 대상이 히브리서, 야보보서, 베드로전후서처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유다서는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반복해서 말한다. 베드로후서 2장과 3:1-4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베드로후서는 AD66년경, 유다서보다 1년 전에 기록되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과 3장 3절은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예상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

그 뒤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거짓 교사들의 움직임은 더 강성해지는데 교회 성도들은 인지하지도 못하고 대처하려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조심도 안 한다.

그래서 유다는 다시 한 번 베드로의 글을 인용하면서 진리 전쟁을 촉구한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는 결코 잠자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자들의 실례를 연대 순으로 기록함

1. 4-5절 창세기 6장 노아 당시 죄지은 천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홍수 심판
2. 6-8절, 창세기 18-19장, 롯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며 의를 따르지 않던 자들에 대한 유황불 심판
3. 10-14절,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 선한 천사들도 악한 천사들을 마구 대하지 않는다.
4. 15-16절 민수기 발람 이야기

유다서

1. 5절, 이집트 탈출 이후 불순종하다가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정죄받아 죽은 자들
2. 6절,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 정죄
3. 7절, 롯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심판
4. 8-9절,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 모세의 몸에 대해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대립하는 것
5. 11절: 가인과 발람
6. 에녹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베드로후서와 비교해서 유다는 이집트 탈출 이후 불순종하다가 시내 광야에서 죽은 자들, 가인, 그리고 에녹 시대 불신자들에 대한 정죄를 추가한다.

5절: 유다는 구약성경에 정통한 성도들에게 비록 구약을 읽어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

성경을 읽는 이유: 기억하려고, 자꾸 잊으니까, 목사의 주된 임무

대표적인 책, 신명기, 40년 광야 생활 후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새로운 세대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 신8:1-5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도 몇 시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을 망각함

시내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죽은 자들(5절)

5절: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은, 탈출 1세대 사람들

가데스바네아 사건(민13-14장)

1. 사건이 일어난 시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탈출 이후 45일쯤 지나서 종교력으로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함
시내산에서 성막 건축, 율법 수여. 약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 오순절, 초실절부터 50일
민수기 1:1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심.

이때 둘째 달 이십일에 시내 산을 출발해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 시작(민 10:11-12).

민33장, 이후 여러 곳(다베라, 기브롯하다아와 등)을 거쳐 가데스바네아(가데스)에 도착함.

그러므로 가데스바네아 사건은 이집트 탈출 이후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발생함

이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것”이라 하셨으므로, 그들은 남은 기간인 약
38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고, 여호수아 1장에서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진입이 시작된다.

2. 사건이 일어난 장소: 가데스바네아 (*)

가데스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에 위치한 광야 지역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도착한 결정적 장소임.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살피게 함(민 13:1-3).

이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

3. 사건의 개요

정탐의 결과: 40일 동안 땅을 탐지한 후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임을 인정함. 그러나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두려워함(민 13:27-29).

두 부류의 보고:

10명의 불신앙적 보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 앞에서 메뚜기 같다”며 불가능을 강조(민 13:31-33).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민 14:6-9).

백성의 반응: 온 회중은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가나안 진입 대신 이집트로 돌아가자
고 함(민 14:1-4).

하나님의 진노: 그들의 불신앙과 반역은 곧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간주됨(민 14:11, 22).

4. 사건의 결과

징벌 선포: 하나님은 20세 이상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
심. 이는 정탐한 날(40일)에 비례하여 1일을 1년으로 환산한 심판(민 14:29-34).

예외: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믿음을 지킨 자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허락받음(민 14:30).

즉각적 심판: 악한 보고로 백성을 낙담시킨 10명의 정탐꾼들은 즉시 재앙으로 죽음(민 14:36-37).

백성의 무모한 행동: 징계를 듣고 후회한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을 치러 올라가지만, 주의
임재와 재가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함(민 14:39-45).

5. 유다의 촉구: 이들의 불신과 배교를 기억하라.

6. 이들은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광야에서 죽었다.

노아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심판(6절)

6절: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노아의 대홍수와 관련된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8-20절, 베드로후서 2장 4-5절에도 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대홍수가 사건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천사론

오늘 아이들과 초신자들을 위해 간단히 천사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천사들의 미스터리(*)

● 천사(Angel)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것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모두 일차적으로 사자(使者) 즉 심부름꾼을 의미하며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곳도 있다(마11:10; 눅7:24).

그런데 ‘사자’가 아니라 ‘천사’라는 말을 쓸 때는 대개 하나님의 심부름/일을 하는 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은 능력이나 지혜 면에서 사람보다 고등한 인격체, 즉 하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여 세상사를 집행하시기도 하고 개인이나 국가 혹은 전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도 하신다(마1:20; 22:30; 행7:30 등).

그들은 순수한 영이며 영적인 몸을 가진 존재로 존재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한 남자의 모습으로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나타난다(히13:2). 성경은 천사를 언급하면서 언제나 남성 단수 대명사 he를 사용하며 이로써 천사들이 남성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여자 천사나 아기 천사 혹은 날개 달린 천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한편 천사들은 우리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욥38:7).

천상에는 천사들과는 다른 종류인 그룹, 스랍 등이 있다(사6:2-6; 겔10:1).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 가운데는 천사장이 있고 왕좌, 통치, 권능, 권력 등은 천상에 존재하는 여러 등급의 존재들을 가리킨다(골1:16; 계12:7).

마귀에게도 천사들이 있다.

사람의 창조 전에 천사들의 일부가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여 사탄의 천사들, 즉 마귀들이 되었다(마25:41; 계12:9).

1.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2.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계12:7)

3.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12:9)

개역성경; 사자, 카톨릭 성경: 부하들, 새 한글 성경: 심부름꾼(마), 부하들(계)

사람의 창조 전에 천사들의 일부가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여 사탄의 천사들, 즉 마귀들이 되었다(마25:41; 계12:9).

창세기 6장 1-8절의 대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여자와 성적으로 결합하여 거인들을 출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 땅에 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유6와 뱀후2:4는 그들을 가리켜 ‘자기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거처를 떠나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어둠 밑에 예비된 자들’이라 부른다.

창6:1-8을 읽자.

노아의 대홍수 원인 중 가장 큰 것: 천사들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 것

하나님의 아들들(Sons of God)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천사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천사들이라고 말하며 요세푸스의 저서에서 볼 수 있듯이 정통 유대인들 역시 그들을 천사들로 본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창6:1-4).

창6:2, 4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며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킨다.

창1:1의 하나님은 창조자 엘로힘이며 그 뒤에도 엘로힘은 계속해서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구속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여호와

(주)의 아들들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는 구약 성경에 총 다섯 번 나오며 그 다섯 번 모두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을 의미한다(창6:2, 4; 욥1:6; 2:1; 38:7). 창세기 6장에는 ‘경건한 셋의 후예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말이 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창6:4).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이 있었다.”는 말은 홍수 이전에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이 홍수 이후에도 있었음을 보여 준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가 아이들을 낳았고 홍수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아이들을 낳았다. 그런데 만일 이 구절이 홍수 이전의 경건한 셋의 아들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을 의미한다면 홍수 때에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이 다 흙 속에 묻혀 버렸을 터이므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단 한 가지 해결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며 사람들의 딸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여자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과 결혼해서 거인을 낳은 것은 성경이나 세속 역사에 없다.

한편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음을 보여 준다. 유5-7에서 유다는 (1)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후에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스라엘 백성과 (2) 하늘을 떠나 낮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행한 불순종한 천사들과 (3) 낮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저지른 연고로 죽어서 영원한 불의 보복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에 대해 말한다. 첫째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셋째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둘째 사건을 기억나게 해 주는 구절은 창세기 6장 말씀뿐이며 따라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한편 사도 베드로 역시 벤후2:4-6에서 같은 사실을 보여 준다.

어떤 이들은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마22:30)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구절은 “부활 때에는 어느 누구도 결혼하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결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은 성경을 그대로 따르는 너무나 당연한 해석이다.

20-21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John MacArthur 목사

그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분명히 타락한 천사들(fallen angels)로 해석한다고 강의와 주석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유대교 전승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하고, 베드로후서 2:4-5, 유다서 6절 등 신약 성경 구절과 연결해 이해한다.

특히 MacArthur Study Bible 주석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창 6:2 부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며, 이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거인 종족(네페림)을 낳았다.” 이어서 “이것은 단순히 경건한 셋의 자손과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의 결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사람들과 뒤섞인 사건”이라고 해설한다.

즉, 맥아더 목사는 이 본문을 “천사들의 타락 사건”으로 보며, 이것이 노아 홍수 심판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가르친다. 2001년 1월 7일, 창6:1-4절 강해, Demonic invasion

결론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집행하셨다.

하나님은 이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두심
그 장소 타르타로스. 이들은 다른 마귀들과 달리 묶여 있어서 움직이지 못함
거짓 교사들, 배교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롬2:6-8

진리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편에 서야 한다.
반대편에 서면 반드시 정죄를 받는다.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유다서 15: 롯 시대의 진리 전쟁 소돔과 고모라는 유향불 정죄를 받았다

유3-7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진리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예배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 진리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유다서를 몇 시간 강해한다.

지난 몇 시간 유다서 서론 부분, 왜 진리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가?

교회 내외부에 사탄 마귀와 거짓 교사들이 있고(4) 거짓 교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4절에 있듯이 이런 자들은 반드시 정죄를 받는다. 이 정죄는 5절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1. 5절, 이집트 탈출 이후 불순종하다가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정죄받아 죽은 자들
2. 6절,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 정죄받음
3. 7절, 롯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고 정죄받음
4. 8-9절, 통치권, 모세의 몸 미가엘과 마귀의 대결
5. 11절: 가인과 발람이 정죄를 받음
6. 에녹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정죄받음

지난 시간 5절과 6절, 오늘 < > 나머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심판을 행하신다.

유다의 기록 목적(5절)

5절: 유다는 구약성경에 정통한 성도들이 구약을 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고 말한다.

기억해야 한다(고전10:10-11)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향 불 심판으로 죽은 자들(7절)

7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7절은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의 행위가 창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위와 비슷하고 그 결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음을 보여 준다.

공통점: 소돔과 고모라, 노아 당시 세상, 남자들이 낯선 육체를 따라감(strange flesh)

노아 당시 천사들이 여인들과 교접하여 거인들을 생산함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 대부분은 동성애로만 생각함, 영어로 Sodomy는 동성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의 동성애 상대는 다름 아닌 천사들이었다. 창19:1, 두 천사,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낯선 육체'라는 말이 사용됨.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종류의 육체

창6:4의 하나님의 아들들

o 소돔과 고모라 사건: 창18-19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상태: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심히 큰 죄인들이었더라(창13:13).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에 자신을 내줌(유7)

벧후2:7-9절, 더러운 행실(7), 불법 행위를 저지름(8), 동성애는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다(롬 1:24-27; 레18:22).

인류 문명 멸망의 원인 중 하나: 동성애, 동성애 합법화(차별 금지법)는 곧 기독교 탄압으로 이어진다.

1. 게이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다. 치유 가능하다.
2. 게이의 결혼 합법화는 게이 문화를 조장한다.
3. 게이의 결혼은 온갖 형태의 결혼을 가능하게 만든다(근친상간, 수간 등).
4. 게이는 게이를 키운다. 5. 이성 간의 결혼이라야 자녀 출생 가능
6. 게이는 사회의 근간을 파괴한다.

아브라함의 증보기도(창18:23-32)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 심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여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확실하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 시대의 도시들은 심판을 받았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거짓 교사들과 힘써 싸워야 한다.

순진한 자들이 같이 파멸당하지 않도록.

통치 권세 비방, 모세의 몸 미가엘과 마귀의 대결(8-9절)

8절: 이들은 꿈꾸는 자들(몽상가), 더러운 자들 권위, 육체를 더럽힌다(벧후2:18-20).

이들은 통치권 등 세상 권세자들을 모두 무시한다.

세상의 권력자는 하나님에 세우신다(롬13:1),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정부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딤후2:1-2).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벧전2:3-17). 단 한 가지 예외: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면 그 일을 피해야 한다. 이집트 탈출, 산판들, 아론과 모세, 초대 교회 성도들 부모와 자식(엡6:1-4), 주인과 종(엡6:5-8, 노사),

교회에서도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히13:7, 17; 벧전5:1-6).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권위를 세운다.

그들의 반역의 원인은 “꿈꾸는 자들”(유다 8)이라는 표현 속에 드러나 있다. 이 사람들은 비현실과 망상 속의 꿈같은 세계에서 산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후, 그들은 거짓 교리로 마음을 채우며 자기 자아를 부풀리고 반역을 조장한다. 유다는 이들을 “이성 없는 짐승”(벧후 2:12, 22)에 비유한 베드로의 묘사를 반영했다. 짐승이 본능을 따라 사는 것처럼, 배교자들도 그렇게 산다.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그는 짐승의 수준으로 추락한다.

유다는 그들의 반역의 과정도 분명히 묘사했다. 반역과 교만의 결과로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짐승처럼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며 산다.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되었다는 가르침(벧후2:17-19)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유8의 위엄 있는 자들(8, 벧후2:10)은 앞뒤 문맥상 천사들을 말한다.

성경의 가르침: 우리는 심지어 악한 마귀도 얹잡아보고 비방하면 안 된다(유8-9).

천사들은 위엄과 권능이 우리보다 커도 자기 영역이 아닌 데는 참견하지 않는다.

여기의 뜻은 선한 천사들도 심지어 악한 천사들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벧후2:2).

구체적인 예: 9절, 모세의 몸을 두고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다투지만 욕설로 비난하지 않는다.

신34장: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음(5-6), 하나님이 직접 골짜기에 그를 묻음

천사장: 성경에는 미가엘만 나와 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천사장(단10:13, 12:7)

그런데 미가엘은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었다. 왜? 어떤 사람들, 이런 기록이 없다.

유다는 지금 성령님에 의해 움직여서 그분의 말씀들을 기록한다(벧후1:21).

우리는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는다.

즉 미가엘은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면서 논쟁하였다.

1. 하나님은 아마도 미가엘을 시켜서 그를 묻게 하셨을 것이다.

마귀는 모세의 몸을 두고 미가엘과 맞서 그의 매장지가 알려지기를 원했다. 이것은 후일에 그것이 그 백성에게 울무가 되고 우상숭배로 이끄는 수단이 되게 하려 함이었다. 마귀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우상숭배를 일으켰다, 천주교의 성인 숭배,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매우 개연성이 커 보인다.

2. 모세 몸의 부활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모세가 프리바에서 지은 죄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을 근거로 그의 부활(물론 선한 부활)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모세의 몸은 일으켜졌다. 이것은 변화산에서 그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두 사람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가엘이 마귀가 그리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은 7년 환난기 끝에 일어난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일을 위해 먼저 부활되었을 수 있다.

10절: 이런 자들의 특징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한다. 즉 하나님의 일들을 비방한다(벧후2:12).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벧후2:22절의 개와 돼지).

이들은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들로 자기를 부패시킨다. 즉 짐승처럼 본능에 의해서만 산다.

4절: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꾼다. 모든 것을 육체의 정욕대로 행한다. 벧후2:19

이들에 대한 정죄: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예

가인: 창4장,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함, 가인의 길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길이다. 누가는 행9:2에서 기독교를 이 길이라고 말함

가인과 발람 같은 자들의 타락 원인: 불의의 샅을 사랑한다(15).

이들은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데 명수다.

발람 이야기(민22-25), 모압의 발락, 이방인 대언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다. 발람은 그 일이 잘못된 줄 알았지만 탐욕으로 인해 결국 가게 된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와 길을 알았지만 악한 길을 선택하였다. 발락에게 갈 때에 나귀가 말을 하며 그를 꾸짖음(민22:22-35). 심지어 짐승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데 사람이 안 한다(사1:3).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다.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여 간음하게 함(미25). 24000명이 죽음(민25:9) 그는 나중에 여호수아에 의해 죽임을 당함(수13:22)

민31:8 결국 그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왕들을 치는 전투에서 칼에 죽임을 당한다.

고라: 민16-17장,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하려 함

땅이 입을 벌려 고라, 다단, 아비람을 삼킴(민16:31-33)

불이 나와 250명을 소멸: 그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던 250명의 통치자들은 주 앞에서 불이 나와 소멸되었다(민 16:35).

사건 다음 날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재앙이 생겨서 14,700명이 더 죽었다(민 16:41-50; 16:49).

결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불의, 불법, 배교 행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야 한다.

거짓 교사, 거짓 교리들을 찾아내서 경고해야 하고 제거해야 한다.

성경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유다서 12: 거짓 교사들의 일곱 가지 특징 에녹의 진리 투쟁과 심판 증언

유12-19

성경에는 진리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온다. 180구절, 특히 사도 요한의 서신에 많이 나온다.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14:6), 성령님은 진리의 영(요14:7; 15:26)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17:17),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대적하려는 자들이 있다. 사탄 마귀와 그의 마귀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조정받는 거짓 교사들과 목사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진리를 지키는 전쟁을 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유다서이다.

AD66년경,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통해 거짓 교사들의 등장과 그들이 하는 악한 일을 알려주고 교회가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함

그러나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회 안에는 베드로의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진리의 터전인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를 맞음

그래서 유다는 3절에 있는 대로 편지를 씀: 3절

원인: 교회 안에 가만히 기어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짓 교리로 바꾸려는 자들(4)

오늘 < >, 먼저 그들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처럼 진리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야 한다.

유다는 먼저 11절에서 악한 자들의 예를 세 명 들고 그들이 멸망한 것을 기록한다.

1. 가인: 창4장,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함.
2. 발람(민22-25),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부탁을 받고 그 일이 잘못된 줄 알았지만 탐욕으로 인해 결국 가게 된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와 길을 알았지만 악한 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24000명이 죽는 일이 생김

가인과 발람 같은 자들의 타락 원인: 불의의 삶을 사랑한다(15).

이들은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데 명수다.

3. 고라: 민16-17장,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하려 함
땅이 입을 벌려 고라, 다단, 아비람을 삼킴(민16:31-33)
불이 나와 250명을 소멸: 그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던 250명의 통치자들은 주 앞에서 불이 나와 소멸되었다(민16:35).

이것들을 근간으로 유다는 12-13절에 거짓 교사들의 일곱 가지 특징을 기술한다.

거짓 교사들의 일곱 가지 특징(12-13)

1. 더러운 얼룩(12): 베드로는 그들을 '점과 흙'이라 불렀다(벧후 2:13). 이자들은 지역 교회 안의 '사랑의 잔치'에 끼어들어 그것들을 더럽혔다. 거룩함을 더하기는커녕 오히려 빼앗아 버린다.
사랑의 잔치: Charity를 베푸는 잔치, 애찬이라고도 불림
지금 식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교제권에 들어와 거룩함을 빼앗아 가며 더러운 얼룩을 남기는 존재들
2. 물 없는 구름(12): 비를 약속하지만 실제로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은 농부에게 실망을 안겨 준다. 마찬가지로 배교자들은 영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며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3. 두 번 죽은 나무(12절): 가을의 과수원 그림, 가을에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지만 나무에 열매가 없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다른 이들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들에게 줄 것이

없다. 그들은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뿌리도 없다(“뿌리째 뽑힌 자”). 그래서 ‘두 번 죽은 자들’이라 불린다. 둘째 사망의 정죄를 받는 자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

4. 바다의 성난 물결(13절): 바다는 장엄하고 위대하지만 폭풍우 속의 바다는 무섭다. 유다는 배교자들, 거짓 교사들을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성난 물결’에 비유한다. 이는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교만한 말 때문이었다.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유16). 바다 물결처럼 요란하지만 결국 교제권에 남기는 것은 더러운 찌꺼기뿐이다.
5. 떠돌아다니는 별(13절): 유다가 말하는 것은 고정된 별이나 행성이 아니라 ‘유성’이다. 유성은 잠깐 나타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고정된 별은 길잡이가 되지만 떠도는 별은 사람을 길 잃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배교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깜깜한 어둠’을 영원히 예비하셨다(유다13, 6). 떠도는 별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영원한 어둠으로 이끈다.
6.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자들(16절): 유다는 이 묘사를 마무리하며 이들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한다. 베드로는 이들을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한 자’라 했다(벧후2:14). 겉으로는 성도들을 돕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자기 정욕만을 추구한다. 그들의 방식은 원망과 불평으로 사람들을 불만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고전10:1-10). 성도들은 “모든 일을 불평과 시비 없이 해야 한다”(빌 2:14). 거짓 교사들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 간에 불평을 퍼뜨려 결국 잘못된 교리에 빠뜨린다. 그들은 또 ‘크게 부풀린 아침의 말’(벧후 2:18)을 사용해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한다. 겉으로 화려한 말솜씨를 갖추었으나 내용은 공허하다. 놀라운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잠시일 뿐,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7. 이들은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자들이다(19).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 자신을 분리하다. “나는 제사장이다. 너희보다 더 많이 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가 있다.” 교회를 분열시킨다. 이들은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즉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본성에 속한 삶을 사는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런 자들이 거짓 교사들로 사람을 속인다.

현시대의 거짓 교사들(17-18)

말세의 특징(18): 거짓 교사들의 등장,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한다.

이미 베드로 등이 이야기하였다(벧후3:1-7).

1. 재림의 약속 부인(3-4): 재림 휴거 부활 부인
2. 세상은 그대로 있다(4). 균일하게 변한다. 이들은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같은 대격변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으므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Uniformitarianism). 진화론의 핵심: 모든 것이 균일하게 변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 자체가 모순이다. 격변은 심판을 뜻한다. 세상 지식(생활양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무엇을 바꿀 것인가?
3. 구체적인 사례(5-7)

창조 부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생겨남
창조: 창1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르시 되”가 9번(시33:9),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유지하신다(히1:3).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그 세상에 간섭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 땅과 바다의 분리(둘째 날 창1:9; 시24:2; 104:5-9)
홍수(6): 노아의 홍수는 균일론에 정면으로 위배됨(3-4절 반박)

베드로의 포인트: 하나님은 언제라도 역사에 개입할 수 있다.

지금 세상(7): 지금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유지되다가 불에 의해 파괴된다(창9:11-13).
6절의 물의 넘침은 노아 홍수, 이로 인해 멸절된 것은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창7:23)

이 외에도 현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리들이 있다.

심리학 동원: 모든 문제 주변 환경 탓

인문학 동원: 결국 인간의 지혜로 무언가를 해 보겠다는 시도

오순절 은사 운동 신사도 운동 하는 자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하나님의 심판(14-15)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에녹 이야기는 창5:18-24, 히11:5. BC 3382-BC 3017(365년)

에녹의 심판 메시지, 이것 역시 외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의 기록이다.

그의 시대에 아담, 셋, 에노스, 무두셀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같이 살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ungodly(6번, 4절, 15절 4번, 18절),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다는 말
에녹이 처음 14-15절의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는 아마도 다가올 홍수 심판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는 분명히 사악한 시대에 살았으며, 죄인들은 악한 행위를 범해도 제재 없이 무사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에녹은 심판이 반드시 오며, 사악한 자들이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렸다.

하지만 이 대언의 최종적 적용은 말세의 세상 심판을 가리킨다. 곧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기록한
바로 그 심판이다. 거짓 교사들은 이 대언을 조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증거였다. 주님과 사도들, 대언자들 모두가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벧후 3:1-4). 에녹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대언을 했다! 보라, 하나님께
서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그렇다면 14-15절에 기록된 에녹의 대언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1. 그것은 주님이 친히 집행하시는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14-15).
이때의 심판에서 그분께서는 기근이나 홍수로 대신하시거나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친히 오신다.
이는 사건의 엄중함과 최종성을 보여 준다.
2. 주께서는 혼자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한다. 유다서 14절에서 ‘수만 성도’의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며, 천사를 가리킬 수도 있다(신 33:2; 마 25:31). 그러나 계19:14,
골3:4, 살전3:13을 보면, 주께서 다시 오셔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의로운 왕국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하심을 알 수 있다(고전 6:2-3 참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당했으나 언젠가 상황은 뒤바뀔 것이다.
3. 그것은 보편적 심판이다. 주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니,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방주 밖의 모든 자들이 홍수로 멸망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자들이 롯의 가족 일부를
제외하고 유황불로 멸망당한 것처럼,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포함한다. 유다서
15절 한 절에서만 ‘불경전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이라는 ungodly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반복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다(벧후3:7). 벧후3:10-13절의
주의 날, 주 하나님이 위엄을 보이며 영광을 받으시는 기간
주의 날: 휴거, 7년 환난기, 1000년 왕국(심지어 새 하늘과 새 땅) 포함
4. 그것은 의로운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그들의 죄들을 보여 주시며 심판의 정당성을 그들에게
납득시키고, 유죄를 선언하시고, 형벌을 선고하신 후 집행하신다.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
5:22). 기소는 있지만 변호는 없다.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된다”(롬

3:19). 선고는 있으나 항소는 없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보다 높은 법정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과정은 의롭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집행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를 기록해 두셨다. 또한 그 행위를 저지를 때의 동기와 은밀한 욕망까지도 기록하셨는데 그것들조차 불경건하다! 주께서는 그들이 주께 대적하여 내뱉은 “거친 발언의 말들”(유다 15)을 기억하신다. 여기서 ‘거친’이라는 말은 ‘거칠고, 가혹하고, 무례한’이란 뜻이다. 이들은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자들”(유다 16)로서 하나님께 험한 말을 했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벧후 2:10). 그러나 심판 날에 그들의 말이 그들을 고발할 것이다. 그들은 “헛된 자랑의 말들”(벧후 2:18; 유다 16)을 했지만, 그 거창한 말들이 큰 진노를 불러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때로 이렇게 묻는다. “주여, 사악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사악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개선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어느 때까지 말을 내며 거친 것들을 말하리이까?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어느 때까지 스스로 자랑하리이까?(시94:3-4).

그러나 그 답은 시편 50:3-6에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분리(separation)이다.

하나님은 늘 분리하시는 분이다: 노아의 방주의 사람과 짐승, 아브라함, 유대인, 유대인도 지파별로 분리,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레11). 성도도 분리됨, 세상 사람들도 나누심(행17:26-27) 분리는 진리를 걸러내는 일, 목사와 교사의 일: 분별과 분리(겔44:23)

현 시대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시대(integration), 적그리스도는 통합의 명수(단8:25)

통합의 이유: (1) 두려움 때문에, (2) 많은 돈을 벌기 위함

온 세상이 통합 분위기라 분리라는 말/행위 자체가 배척을 당함

많은 교회들이 종교 일치 운동: “교회가 교회가 아니다.”

고후6:14-7:1

분리의 원칙: 기준: 미심쩍으면 피하라. 대부분 그런 것은 더럽다.

유다서 17: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리들과 어떻게 진리 전쟁을 해야 하는가?

유20-25

올해 우리는 23시간에 걸쳐 예배에 대해 공부하였다.

아마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한 것 같다.

왜 우리가 그토록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실로 예배는 인간의 창조 및 존재 목적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14:6), 성령님은 진리의 영(요14:7; 15:26)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17:17)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요4:22)

그래서 진리를 열심히 탐구하고 그 뒤에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주후 67년경의 유다서(25절)는 진리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줌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들의 위험,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

목적: 성도들이 흠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려는 것(24-25)

오늘 < >,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 진리 전쟁의 최종

왜 진리 전쟁이 필요한가? 문제의 근원

우리가 진리를 알고 기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마귀는 이것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변개한다.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마13:24-30, 그럴듯한 모습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다. 마13:19도 유다는 구약 시대부터 이런 자들이 등장함을 예로 보여 준다.

교회 안에 가만히 기어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짓 교리로 바꾸려는 자들(4)

유다는 먼저 11절에서 악한 자들의 예를 세 명 들고 그들이 멸망한 것을 기록한다.

1. 가인: 창4장,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함.
2. 발람(민22-25)
3. 고라: 민16-17장

이런 자들의 타락 원인: 불의의 삶을 사랑한다(벧후2:15). 또 부질 없는 명예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들은 기복신앙, 신비주의, 록음악 등의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획득하려고 애를 쓴다.

구약 시대 거짓 대언자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중세 로마 천주교의 종교 지도자들

현시대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들, 매해 가을 모든 교단의 총회, 금품 수수 의혹, 음행 문제 등

대형 교단 1. 통합 24년(*), 2. 합동 2023년(*) 3. 합동 2025년(*), 제110회 총회는 개막 전부터 1000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자격 박탈 사태가 있었는데, 이는 그가 분쟁 교회 사건 개입 과정에서 7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무려 이틀이나 개최가 연기됨

4. 통합 총회장 김OO(*), 2023년 7월 8일 여성 교인과 무인텔에서 나오는 것이 교회 장로들에 의해 발각됨

집사가 무인텔 영상 촬영한 것으로 알려짐, “그는 파주 통일동산 근처 숲속의궁전에서 김의식 목사와 본 교회 성도 이OO 권사가 투숙한 사실을 알고 현장에 가서 약 1시간을 기다렸다가, 투숙 후

이 권사가 운전하고 함께 동승하고 나오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 뒤 교회 재판, 영등포 노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무인텔 주차장에서 나오는 장면인 정황 증거만 있지, 결정적·직접적 증거가 없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 실정이다. 결국 돈과 명예, 여자 등

유다의 판결: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분리하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19)

현시대의 거짓 교사들(17-18)

말세의 특징(18):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한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이슈인 예수님의 재림 부인(17-18)

이 외에도 현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리들이 있다.

심리학 동원: 모든 문제 주변 환경 탓

인문학 동원: 결국 인간의 지혜로 무언가를 해 보겠다는 시도

신비주의 동원: 오순절 은사 운동 신사도 운동

비성경적 종말론 동원: 다미 선교회, 신천지 등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이제 온 세상이 단일세계정부, 적그리스도의 체제로 나간다.

좌익 독재 전체주의, 이스라엘 반대,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딤후3:1,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우리는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며 투쟁해야 한다.

어떻게 진리 투쟁을 해야 하는가?(20-23)

오늘 읽은 유20-25는 우리가 어떻게 진리 투쟁을 해야 하는지 매우 잘 보여 주고 있다.

먼저 20-23절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보여 준다.

배교자들은 무너뜨리는 일에 몰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영적 삶을, 그다음에 자신이 속한 지역 교회를 세워야 한다.

1. 세우려면 기초가 있어야 한다(20).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유20)이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유다서 3절)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의 진리 체계를 말한다.

진리가 없이 믿음을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주관적 믿음은 객관적 진리의 계시에 의존한다. 꿈, 음성 등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영적 성장의 중심이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소홀히 하면서도 강건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성장이 가능하다.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규칙적이고 훈련된 방식으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왜 유다는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을까?

1)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의 대조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의 "불경건함"과 "부패함"을 폭로한다(유4, 8, 10절).

그들의 믿음은 더럽혀지고 인간적 욕망에 따른 믿음이다.

반대로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변질되거나 보완될 필요 없는 완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2.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우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유20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영적 성장에서 함께 가야 한다(행6:4).

얼마 전 여행을 하면서 레오나드 레이븐힐의 여러 책들을 가져감,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무릎 부흥',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

내용: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

하루에 몇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 낙타 무릎이 되어야 한다. 등등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서 돌아온 뒤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살전5:16-18, 쉬지 말고 기도하라(17), 호홉하듯이 하라는 말이다.

유다는 이것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한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19의 거짓 교사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과 대조해 보라.)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골방에서 홀로 기도할 수 있지만(마6:6) 결코 혼자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하시기 때문이다(로마서 8:26-28).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수 있다(엡1:15 이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통로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도우실 수 있다(엡2:18).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설교 시리즈를 곧 할 것이다.

3.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건축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기도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아무리 귀중하다 해도 다소 형식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다는 또 다른 요소를 추가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유21절). 그는 "구원받기 위해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 자들"임을 확신시켰기 때문이다(유다서 1절).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썼다. 즉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믿음생활 하는 것, 헌금 생활 하는 것 등 기초적인 것을
4. 대적들과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흠 즉 소망이 필요하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흠을 기다리라."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들려야 한다. 특별히 "기다리라"(유21절)라는 말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재림 약속과 관련이 있다. 현시대의 악한 세상과 진리 싸움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낙심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흠을 기다린다. 그 공흠의 끝은 그분께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공중 강림하실 때에 몸이 변화되어 위로 끌려올라가는 휴거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소망은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닻과 같다(히6:19).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22-23)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배교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유다는 영적 도움이 필요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묘사했다. 그리고 차이를 두어서 이 두 부류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22절에서 '차이를 두라'고 하는데 NIV, 개역 등은 '차이를 두어'를 빼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흠히 여기라'로 번역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차이를 두고'이다.

유22의 "차이를 두어"(making a difference, διακρινόμενος)는 초기 역본들과 교부들의 인용, 다수 비잔틴 사본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 표현이 누락된 것은 소수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천주교가 따르는 소수 사본) 뿐이다. 차이를 두어가 있어야 앞뒤 말이 온전해진다.

22절: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1.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 있다. 이들은 흔들리는 사람들이다. 베드로는 이들은 "불안정한 흔들"이라고 말하였다(벧후2:14). 이 사람들은 회심했지만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다. 우리의 책임은 그들에게 공흠을 베풀고, 또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면서, 배교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각종 거짓 루머로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다. 여기에 넘어가는 약한 자들이 있다. 이런 종류의 사역은 많은 사랑과 인내를 요구하며, 우리는 미성숙한 신자들이 옳고 그름을 안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거짓 교사들이 특히 불만 많은 교회 성도들을 노린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목사와 성도들이 새 신자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 성숙한 성도들이 젊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법과 걷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2. 불 가운데 있는 자들(23절). 분명히 이들은 교제를 떠나 이제 배교자 무리의 일부가 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야 한다!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그를 소돔에서 끌어냈듯이(창19:16), 때로 우리는 무지하고 불안정한 신자들을 거짓 교사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 "두려움을 가지고"라는 구절은 (1) 두렵게 해서라도 를 말한다. (2) "조심해서"를 의미한다. 잘못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이 밧에 걸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많은 구조자들이 스스로 익사했다. 불안정한 신자가 거짓 교리에 사로잡혔을 때 그를 도우려 하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를 사용하여 우리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를 구원하려다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거나 타버릴 수 있다!

3. 더러운 옷조차 미워해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하지만 죄도 미워해야 한다. 죄가 있는 곳마다 사탄이 일할 수 있다. 더러움은 빠르고 은밀하게 퍼지며, 그래서 단호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만약 유대인 제사장이 옷이 나병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는 그 옷을 태워버렸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24-25).

유다는 1절에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다. 누구도 이러한 안전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살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

1.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 마귀와의 싸움,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에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친구약 성경을 읽는다. 히브리서 11장을 읽는다.
2. 하나님은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우리를 제시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아버지의 왕좌 앞에 드리는 특별한 기쁨을 누리실 것이다! 이 "기쁨"으로 인해 그분은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냈다(히12:2)

엡5:25-27

3. 하나님은 홀로 지혜로우신 분: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주실 수 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특별한 지식을 자랑했지만, 그들에게는 영적 지혜가 없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야고보서 1:5).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걸을 것이다(골로새서 1:9-10).
4. 그분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 '내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

진리 투쟁을 하는 최종 목적

유24-25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말씀, 영광 찬송

하나님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25).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영광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의 총합이다.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영광스럽다! 사람의 영광은 베인 풀처럼 시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된다.

존엄은 "위대함, 장엄함"을 의미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장엄하신 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통치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만물에 대한 완전한 통제의 개념을 담고 있다.

권능은 "권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능력을 사용할 권리이다.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마28:18), 여기에는 어두움의 세력들에 대한 권세도 포함된다(엡1:19-23).

결국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애써서 진리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 유다는 서신서의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을 상기시키려 하였다. 만약 그들이 그것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들은 결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면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다.

결론

진리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비록 원수 마귀,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고 위험이 크다 해도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영광 중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자.